

| | | | | |
|-----------|--|---|-------------|--|
| 제 목 | 국 문 | 대학생 흡연량과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 | |
| | 영 문 |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mount and Stress level in University Students | | |
| 저 자 및 소 속 | 국 문 | 배종면, 안윤옥, 박병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
| | 영 문 | Jong-Myon Bae, Yoon-Ok Ahn, Byung-Joo Park Dept. of Preventive Med., Coll.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 | | |
| 분 야 | 건강관련행태 | 발 표 자 | 배 종 면 (전공의) | |
| 발표 형식 | 구 연 | 발표 시간 | 15분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 | |

1. 연구 목적

흡연의 심각한 유해성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흡연률의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보건상 금연률을 높이는 노력 이외에 절대 흡연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 중 절대 흡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흡연량의 결정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바, 저자는 흡연량과 관련이 있는 요소를 스트레스로 상정한 뒤, 개인의 절대흡연량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보려고 했다.

2. 연구 방법

흡연량의 결정요인을 조정하기 쉽게 하기위해선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균일한 집단이어야 하고, 흡연경험이 짧아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므로 대학생을 선정하였고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비교적 높아야 하며 흡연률이 성인과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대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2년 의대 4학년 학생중 여학생을 뺀 181명과, 1993년 의대 4학년 학생중 여학생을 뺀 199명에게 흡연과 음주의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자기 기입식 설문서를 통해 알아보았다.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보기 위해 '간이 스트레스 측정도구' (BEPSI)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바쁜 외래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간단하게 측정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측정도구이다.

3.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 380명에서 응답률은 58.7% (223명)였다. 응답자의 흡연률은 39.9%였으며, 주로 예과시절에 흡연을 시작했다. 미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본 바, 응답자에 비해 주거환경상 하숙·자취·기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았다.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는 89명에 대해, 교란변수로 작용하리라 여겨지는 주거환경을 보정한 가운데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일일 흡연개피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숙·자취·기숙사등의 가족외동거군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흡연량이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4. 고찰

흡연의 습관화는 주로 대학 신입생때 이루어 지며, 일단 습관화 된 경우에 흡연량은 스트레스와 상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학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흡연의 유해요인에 관한 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개인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할 필요가 있겠다.